

혈육을 해하다...가족 '적신호'

광주·전남서...아들 흥기로 살해·친모 폭행치사 등 비극 "접촉 빈도 높은 가족 간 누적갈등 탓"...예방 대책 절실

최근 설 명절 전후로 광주·전남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한 극단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통 가치관의 붕괴, 개인주의 확산, 가족간 불화누적 등으로 친족간 강력범죄가 더욱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목포경찰은 3일 오전 11시 20분께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목포시 상동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20대 아들을 흥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틀 뒤 지인과 통화 중 "아들을 죽였다"고 털어냈고, 해당 지인의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한 경찰이 A씨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아들이 평소 일자리 없이 게임에 빠져 있다며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범행 직전 아들에게 자기 휴대전화를 새 것으로 바꿔 달라며 수십만원을 쥐어줬다가 아들이 다른 곳에 돈을 탕진하자 화가 나 아들과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 A씨는 아들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며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여기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순천시에서는 50대 아버지를 흥기로 찔

러고 달아난 20대 B씨가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순천시의 자택에서 "청소 좀 하라"고 잔소리하는 아버지에게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 이후 자가용을 타고 고속도로로 도주하다 정읍시 농소동 호남고속도로 정읍 나들목(IC)에서 검거됐다.

지난달 29일 새벽 0시 10분께에는 광주시 동구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친모를 살해한 C(64)씨가 존속살해 혐의로 붙잡혀 구속됐다. C씨는 같이 살고 있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범행 이후 지인과 전화를 하면서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밝혔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등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됐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족이니까 서로 범죄를 저지를 리 없다는 생각이 만연한 것과 달리 통계상으로는 가족 간 강력범죄의 비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수년간 광주·전남에서는 존속살인을 비롯한 살인 사건이 꾸준히 발생했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광주시에서 발생한 살인 범죄 검거 건수는 2021년 7건, 2022년 3건, 2023년 10건, 2024년 5건 등이었다. 이 중 존속살인은 2024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1건씩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남의 살인 범죄 검거 건수는 2021년 8건, 2022년 10건, 2023년 14건, 2024년 9건이었으며, 이 중 존속살인은 2021년 1건, 2022년 2건, 2023년 3건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강력 범죄 비율 중 친족간 범죄가 차

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지적한다. 원인은 일반적으로 집단 간 누적된 관계 속에서 표출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가정 사회적 접촉 빈도가 높은 가족 간 범죄가 잦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확산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지고, 웃어른에 대한 공경 문화가 희미해지면서 부모를 존중하는 문화도 사라져 존비속 강력 범죄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족 구조의 변화로 가족과 대화 부족, 정서적 교류 부족 등으로 갈등이 쌓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며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정신건강 치료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존비속 갈등에 대한 교육 및 예방 캠페인 등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사회복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교복나눔장터 분주 4일 광주시 북구 우산동 새마을회 교복나눔장터에서 북구청 주민자치과 직원들이 오는 11일 본격적인 교복 판매를 앞두고 수거해 온 교복을 정리하고 있다. /나영주 기자 mjna@kwangju.co.kr

"비좁은 감방수용은 인권침해" 법원 판단은?

재소자, 국가상대 손해 제기...1·2심 잇달려

일시적 수용률 급증으로 교도소 재소자가 단기간 과밀 수용했다면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흥권)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던 A씨는 2021년 4월 26일부터 7월 13일까지 80일 동안 혼거실(여러 명의 재소자가 함께 사용하는 방)에 수용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40여일 동안 1인당 2㎡ 이하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고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교도소측이 과밀 수용 조치를 취하면서 필요성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4.61㎡ 이상의 독거수용실에서 대부분을 지낸 점 등으로 두루 고려했다"면서 손해배상액을 40만원으로 책정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정에서 특별한 사유 조지라고 보고 원심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인당 2㎡ 이하의 협소한 공간의 혼거실에 수용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과밀 수용된 기간은 코로나 19 유행으로 광주교도소 역시 감염자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조치 등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1년 4-6월 광주교도소의 수용률이 123.4-126.6%로 포화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협소한 혼거실에 수용됐더라도 코로나로 인해 예상할 수 없던 일시적인 수용률 폭증에 따른 것"이라며 "고정기관이 수용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단기간에 단행한 특별한 사정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초등 입학생이 없다...광주 1만명 붕괴

중양초 1명 불과...전남, 1명도 못받은 본교·분교 32곳 달해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 숫자가 광주의 경우 1만명대 밑으로 내려갔고 광주 중양초의 경우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1만명대를 유지했지만 입학생을 1명도 받지 못한 본교·분교가 모두 32곳에 달했다.

4일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의 2023~2025학년도 초등학교 학급 배정 현황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9969명이다.

전년보다 1423명이 줄어든 것으로 광주 초등 신

입생은 2023학년도 1만2538명, 2024학년도 1만1392명 등 매년 1000명 이상씩 감소했다.

입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광주지역 전체 초등학교 155개교 중 올해 신입생 수가 15명에 미치지 못한 초등학교도 17개교에 달했다.

중양초는 1명에 불과했고 무학초·송학초 2명, 임곡초·본량초 4명, 동초중효분교 5명, 복초 6명, 동곡초 8명, 서석초 9명 등이다.

지산초 10명, 삼정초 11명, 동초·평동초·삼도초 12명, 목련초·오치초·효광초 13명으로 광주지역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4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올해 전남 지역 초등학교 진학 예정 아동 수는 1만108명으로 지난해 1만1155명보다 1047명이 줄었다. 2023년 1만2881명에서 해마다 1000명 이상씩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 458개 초등학교 가운데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본교 20곳과 분교 12곳이다.

안일초 등 여수 7곳, 울어초 등 보성 4곳, 군내북초 등 진도 4곳, 관산남초 등 장흥 3곳, 청산초 등 완도 3곳 등이 1학년 학생을 받지 못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유입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전반적인 지방소멸위기와 인구 감소로 학령인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정부, 쌀 재배 면적 감축 전면 폐기를"

광주농민회 오늘 시청앞 기자회견

광주 지역 농민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쌀 재배 면적 감축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5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재배면적 감축 계획 전면 폐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전체 벼 재배면적의 12%에 달하는 8만ha를 감축하겠다는 일방적인 계획을 내놨다"며 "이는 40만8700t의 의무수입량과 동일한 양으로 수입쌀을 위해 대한민국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감축방식이 지자체 자율에 맡겨진 만큼 광주시는 지역 농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강제 감축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재배면적 축소에 참여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직불금 감액을 유예하고 공공비축미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농민축산식품부는 쌀 생산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콩, 깨 등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벼 재배 면적을 줄인 농가에 인센티브(혜택)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벼 재배면적을 8만ha(헥타르·1ha는 1만㎡)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장혜원 기자 hey1@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파할 손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8%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일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박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경)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등 차 지 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